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장서의 폐기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이 은 철*

목 차

- | | |
|-----------------------|----------------------|
| I. 서론 | 2. 기본장서와 서가대기기간 |
| II. 이론적 배경 | 3. 각 주제분야 장서의 폐기기준 |
| 1. 장서폐기의 저해요인 | 4. 주제별 장서의 폐기기준 비교 |
| 2. 선행연구 개관 | 5. 서가대기기간과 장서의 폐기 규모 |
| III. 서가 대기기간의 측정 및 분석 | IV. 결론 |
| 1. 서가대기기간의 측정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학문분야의 변화와 발전도 고도화 되고, 세분화되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생성된 정보의 양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의 홍수” 또는 “정보의 폭발”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보량의 급증 추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운즈」(Robert B. Downs)는 학문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난점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출판량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였다¹⁾.

* 청주대학 도서관학과 강사

1) Robert B. Downs, “Crisis In Ou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2, No.1 (Jan. 1961), 7~10.

2 韓國 비블리아 第4輯

정보량의 급증 추세는 15년을 단위로 하여 배증되고 있으며²⁾, 매년 약40만종의 신간도서가 출판되어 지금까지 세계에는 약 4천만종의 도서가 출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도서출판량도 급증 추세를 보여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는 약 4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⁴⁾.

이와같은 도서 출판량의 급증에 따라 도서관의 장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멧칼프」(Keyeses D. Metcalf)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가 년 평균 4~5%씩 증가하여 16~17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하였으며⁵⁾, 한국도서관통계(1977)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장서도 1964년부터 1977년까지의 13년동안 년 평균 약6%씩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⁶⁾.

도서관 장서의 급증으로 인해 도서관은 서고의 부족 현상과 장서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장서의 질적저하는 불충분한 수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장서의 최신성과 충실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 도서관 봉사를 침체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멧칼프」는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도서가 무한히 유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도서의 폐기가 장서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여⁷⁾ 서고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맥고」(Howard F. McGaw)는 도서를 폐기함으로써 장서의 효용성과 활력성이 증가되어 장서의 활발한 이용과 더불어 장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준다고 하여⁸⁾

2) D.J. Price,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3) Stanley J. Slote. *Weeding Library Collection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5) p. 20.

4) 韓國出版年鑑 1977. (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1978) p. 423.

5) Keyes. D. 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New York: McGraw-Hill, 1965) p. 3.

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통계 1977, (서울: 한국도서관 협회, 1977), 6~7. 대학도서관의 연간 증가 책수와 장서수에서 조사함.

7) Metcalf. *op.cit.*, p. 296.

8) Howard F. McGaw,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arding," *Library Trends*, Vol. 4 (Jan. 1956) p. 277.

장서의 폐기가 도서관관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이 장서폐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음으로 이용되지도 않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장서폐기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어렵다, 힘들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조만간 닥쳐오게 될(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미 닥쳐온) 서고의 부족현상⁹⁾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서폐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서의 폐기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장서의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 가운데서 대출되고 있는, 도서와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의 書架待機期間(Shelf-Time Period)을¹⁰⁾ 측정하여 대학도서관 장서중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 장서의 적절한 폐기시점(Cut-off Point)을 결정하여 폐기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련된 폐기기준을 통하여 각 도서관이 폐기기준 설정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도서관 장서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이며 활발한 도서관 장서의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일반적으로 폐기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도서의 종류로는 이용 요구가 많아서 구입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다수의 복본, 개정판으로 대체된 구판의 도서, 파손 또는 오손된 도

9) 李炳穆, 徐惠蘭, “圖書館資料의 廢棄政策”, 도협월보, Vol. 20, No. 1 (1979. 1~2合) p.8

10) Slotte, *op. cit.* p.168; 서가대기기간이라는 용어는 「슬로우트」가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인 “The Predictive Value of Past-Use Patterns of Adult Fiction in Public Libraries for Identifying Core Collections.”에서 사용하였으며 이 용어는 도서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장래 이용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서의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는 두번의 대출 사이에 도서가 서가에 정지(대기)되어 있었던 기간을 말한다. 예를들면 1980년 3월 20일에 반납되어 1980년 4월 20일에 다시 대출된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30일이 되는 것이다.

4 韓國 비블리아 第4輯

서 잘못 선정된 도서, 내용이 가치가 없어진 도서, 시대에 뒤떨어진 도서 등을 들 수 있다¹¹⁾. 어떠한 경우이든 폐기할 자료를 선정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이용이 되지 않는 도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장래 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결정한 후, 그 변수를 이용하여 장래에 이용이 되지 않을 도서를 선택하여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도서의 장래 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가. 객관적인 기준: 종래의 대출기록, 언어, 출판년도등.

나. 주관적인 기준: 주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예측방법

등이 있는데¹²⁾ 「뮤엘러」(Elizabeth Mueller)¹³⁾ 「리스트」(Winston C. Lister)¹⁴⁾, 「쿠퍼」(Marianne Cooper)¹⁵⁾, 「휘슬러」(Herman H. Fussler)와 「사이먼」(Julian L. Simon)¹⁶⁾, 「슬로우트」(Stanley J. Slote)¹⁷⁾ 등의 연구에서 도서의 장래 이용도 예측방법으로 종래의 대출기록, 언어, 출판년도, 주제전문가에 의한 판단 등을 비교하여 본 결과 종래의 대출기록이 다른 방법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측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서의 장래 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종래의 대출기록인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채택하였다.

11)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Matuchen, N.J., Scarerow, 1968) p.139.

12) Herman L. Totten,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for Storage: A State of the Art," *Library Trends*, Vol. 19, No.3 (Jan, 1971), p.342.

13) Elizabeth Mueller, "Are New Books Read More than Old Ones?," *Library Quarterly* Vol.35 (July 1965), 166~172.

14) Winston Charles Lister, *Least Cost Div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 for Compact Stor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67); Slote, *op.cit.*, 62~63

15) Marianne Cooper, "Criteria for Weeding of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2, No.3(Summer 1968), 340~341.

16) Herman H. Fussler and Julian L. Simon,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Slote, *op.cit.*, 65~67

17) Slote, *op. cit.*, 81~83.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종합대학교 도서관을 표본으로 하여 이 3개 표본 도서관에서의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의 대출도서와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여 현 도서관 장서의 장래 대출 만족도를 나타내 주는 일정한 서가대기기간을 폐기의 기준점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가. 도서관 장서중 서가대기기간의 측정이 가능한 관외대출이 허용된 일반 도서자료중 국내도서에만 국한하였다.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자료와 이용이 적은 외국어로 기술된 도서는 서가대기기간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자료로 인해 본 연구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나. 도서관 장서 중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의 장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분야의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도서의 폐기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지역에 따라 폐기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지적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여 지역적으로 서울 시내에 소재하여 있는 3개 종합대학교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폐기를 저해하는 요인

대부분의 사서들은 장서폐기의 절실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폐기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때문에 장서의 폐기에 대해 생각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막연한 저해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폐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려는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서폐기의 저해요인으로 「카터」와 「뱅크」¹⁸⁾

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18) Carter and Bonk. *op. cit.*, 138~139.

6 韓國 비블리아 第4輯

- 나. 책을 아끼려는 전통적 관념,
 - 다. 장서 폐기기준의 설정이 어려운점,
 - 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 등을 지적하였으며, 「슬로우트」는¹⁹⁾
- 가. 장서수에 대한 집착,
 - 나. 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 다. 책에 대한 의경,
 - 라. 폐기기준 설정의 어려움,
- 등을 들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장서폐기 저해요인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상황에서의 폐기의 저해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힘과 동시에 실무담당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를 고려하려는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서수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서수가 도서관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보겠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양적 기준만을 설정해 놓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한 장서수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 당국자들은 물론 사서들도 장서수를 도서관의 평가척도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점이다.

둘째, 폐기기준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도서를 폐기시킬 것인가의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폐기한 자료가 후일, 누군가에 의해서 청구된다면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셋째, 폐기도서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도서관도 도서관이 소속하고 있는 모기관의 재산의 일부이므로 폐기도서의 처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자료는 정부 재산으로 간주되어 폐기도서의 처리는 법적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업무의 과중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19) Slote, *op. cit.*, 5~6.

폐기를 시행함으로써 일상업무에 부가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염려이다. 목록「카아드」, 도서원부, 기타 문서들을 정리하여야 하고, 서가에서 폐기 도서를 뽑아내고, 서가의 도서를 재배열하여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업무가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기업무도 선택업무와 마찬가지로 정규적인 일상 업무의 일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 도서를 재보시 또는 신성시하는 종래의 관념이다.

옛부터 도서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여 신성하게 여김으로 도서를 폐기하는 것은 진시황의 분서나 「로마」의 문화를 파괴한 「반달」인(Vandal)의 예술 파괴 행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무분별한 장서의 보존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봉사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개관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장서의 급증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서폐기에 관한 주제를 다룬 외국의 문헌은 상당히 많지만²⁾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장서폐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중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연구를 개관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도구를 삼고저 한다.

1950년 「그리더」(Elmer M. Grieder)는²¹⁾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도서관(Standford University Library)의 대출도서와 장서의 최종대출년도를 조사하여 1949년 이전의 15년동안 대출된 일이 있었던 현장서의 61%만 소장하면 현행 대출의 93%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전체 장서의 39%인 76,656권을 보존서고에 옮겨 놓아도 이용에 큰 불편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그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 예상되는 결론을 예시해 주었고, 장래 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인 최종대출년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20) Slote, *op. cit.*, p.49; 장서폐기에 관한 주제를 다룬 문헌이 거의 1,000건에 달한다고 하였다.

21) Elmer. M. Grieder, "The Effect of Book Storage on Circulation Servic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XI (October 1950), 374~376.

8 韓國 비블리아 第4輯

1968년 「쿠퍼」는²²⁾ 장서의 폐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미국 「콜럼비아」대학교의 화학도서관(Chemistry Library) 장서의 과거이용기록을 조사하여,

지난 8년 동안에 적어도 한번 대출된 일이 있는 도서가 99%

지난 5년 동안에 적어도 한번 대출된 일이 있는 도서가 97%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한번 대출된 일이 있는 도서가 95%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한번 대출된 일이 있는 도서가 71%

인 것을 발견하여 지난 5년 동안에 적어도 한번 대출된 일이 있는 97%의 장서만 도서관에 소장하고 나머지 3%의 장서는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에 담당 전공교수에게 폐기할 장서를 점검하게 하였다. 「쿠퍼」는 장서 폐기의 객관적인 기준인 과거 이용 기록에 주관적인 기준인 주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가미하여 폐기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1967년 「리스트」(Winston C. Lister)는²³⁾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도서관의 3개 분관(약학도서관, 물리학도서관, 화학도서관)의 폐기하여야 할 도서와 도서관에 소장하여야 할 도서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서의 출판년과 과거이용기록을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의 비용효과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여, 전자를 이용하여 폐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후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효과면에서 훨씬 낫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폐기기준의 설정 방법으로 과거이용기록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핍슬러」와 「사이먼」은²⁴⁾ 미국 「시카고」대학교 도서관의 경제학과 튜톤어(Teutonic) 및 「튜톤」문학분야의 장서를 대상으로 하여 출판년도, 입수년도, 언어, 지난 5년 동안의 이용, 최종 이용후의 기간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어떤 변수가 장래에 잘 이용될 도서와 이용되지 않을 도서를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변수인가를 밝혔다. 그들은 장래의 이용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출판년, 입수년도, 언어는 과거이용기록보다 훨씬 덜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과거 이용기록이 가장 타당하고 유일한 장래이용의 예언자라고 하였다. 그들은 과거이용기록을 이용하

22) Cooper, *op. cit.*, 339~351.

23) Lister, *op. cit.*, 62~63.

24) Fussler and Simon, *op. cit.*, 65~67.

여 경제학분야 장서의 미래 이용율을

현 장서의 25%를 소장하면 대출의 53%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현 장서의 50%를 소장하면 대출의 92%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현 장서의 75%를 소장하면 대출의 99%를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미래 이용율을 예측하여 적절한 장서폐기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루스웰」(Richard William Trueswell)은²⁵⁾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대학도서관인 「마운트 홀리오크」대학도서관(Mount Holyoke College Library), 「마사츄세츠」대학교의 「구델」도서관(Goodell Library), 「노스웨스턴」대학교의 「더어링」도서관(Deering Library)의 대출도서와 장서의 최종대출년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 대학들의 현 장서에 대한 대출만족도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슬로우트」의²⁶⁾ 최근 연구는 미국의 「뉴악크」공공도서관(Newark Public Library), 「트렌튼」공공도서관(Trenton Public Library), 「모리스타운」공공도서관(Morristown Public Library), 「타리타운」공공도서관(Tarrytown Public Library),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Briarcliff Public Library) 등 5개 공공도서관 장서중 성인용 소설분야 장서의 폐기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떤 변수가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용되는 변수로 도서의 과거대출기록인 서가대기기간과 출판년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규명하였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 논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용되는 변수 중 도서의 과거 이용기록이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5개 공공도서관 장서중 성인용 소설분야 도서의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여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폐기기준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참조)

표1에서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의 대출도서관의 첫행을 보면 조

25) Richard William Trueswell, *User Behavioral Patterns and Requirement And Their Effect on the Possible Application of Data Processing and Computer techniques in University Libra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64): Slote, *op. cit.*, 67~70에서 재인용

26) Slote, *op.cit.*

〈표 1〉 「슬로우트」의 대출도서 및 장서의 서가대기기간

단위 : %

서가대기기간 (개월)	브라이어클리프		태 리 타 운		모리스타운		트 랜 톤		뉴 약 크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서	대출도서	장서	대출도서	장서	대출도서	장서
0	72	22	69	24	87	41	55	12	49	14
1	79	30	77	34	93	52	65	16	62	19
2	85	37	83	42	97	56	70	20	70	22
3	86	41	85	47	—	60	76	22	75	26
4	90	47	88	51	98	63	79	24	78	29
5	94	52	89	55	—	65	80	27	81	32
6	96	56	91	58	—	68	82	29	83	34
7	97	64	93	61	—	71	85	31	84	36
8	—	68	—	62	99	72	86	33	—	39
9	98	70	—	65	—	74	—	35	87	41
10	—	72	94	67	—	75	88	37	88	42
20	99	84	97	82	100	84	93	53	95	60
30	100	92	98	89	—	90	—	61	97	70
40	—	96	—	94	—	93	97	67	99	74
50	—	99	99	96	—	96	—	72	—	78
60	—	—	—	97	—	—	98	74	—	88
100	—	100	100	99	—	97	99	80	100	92
200	—	—	—	—	—	—	—	92	—	98
300	—	—	—	100	—	100	100	97	—	—
400	—	—	—	—	—	—	—	99	—	100
600	—	—	—	—	—	—	—	100	—	—

사 기간동안 대출된 도서의 72%가 지난 3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0개월란에 72%의 도서가 대출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둘째 행은 추가의 7%(79%-72%=7%)의 도서가 지난 30~6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어 조사기간 동안 대출된 도서의 79%가 지난 6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서란은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의 성인용 소설분야 전체장서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가대기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 전체 소설분야 장서중 22%가 지난 30일 이내에 대출되었고, 30%가 6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브라이어클리프」 공공도서관 성인용 소설분야 전체 장서의 22%가 현행 대출요구의 72%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설분야 전체 장서의 22%만 소장한다면 대출요구의 72%는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도서로 구성된 장서를 기본장서(Core Collection)라 한다면 현장서의 84%가 기본장서이므로 나머지 16%는 폐기시켜도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Ⅲ. 서가대기기간의 측정및 분석

1. 서가대기기간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 표본도서관—전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어로 기술된 일반도서 자료중 대출이 가능한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의 대출도서및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3개 표본도서관의 개황은 표2와 같다.

서가대기기간의 측정은 도서의 과거이용기록인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의 유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 측정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출되는 도서의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를 대출창구에서 그때 그때 조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일정기간 수집하였다가 일시에 대출신청서를 통해 대출된 도서를 추적하여 그 도서의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위의 두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전자가 이 업무를 매일 매일의 업무속에 포함시켜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후자를 택하였다.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에 반납일이 기록되어 있는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기록되어 있는 반납일 중 가장 최근에 반납된 날부터 다음 대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1979년 4월 10일에 대출되는 도

〈표 2〉 표본도서관 개황

개 황	도 서 관	전 국 대 중양도서관	경 회 대 중양도서관	단 국 대 중양도서관
도 서 관 설 립 년 ¹⁾		1946년	1951년	1947년
분 류 표 ¹⁾		NDC	DDC	DDC
장 서 수 ²⁾		250,594	217,667	150,124
정 치 학 분 야 장 서 수 ³⁾		3,673	1,984	1,578
경 제 학 분 야 장 서 수 ³⁾		4,238	2,244	1,643
법 률 학 분 야 장 서 수 ³⁾		4,212	2,983	2,389
'79.3. 대 출 책 수 ⁴⁾		2,527	3,606	1,850
'79.3.정치학분야대출책수 ⁵⁾		163	165	146
'79.3.경제학분야대출책수 ⁵⁾		187	158	178
'79.3.법률학분야대출책수 ⁵⁾		246	171	200
대 출 기 간		7	7	7

주: 1) 한국도서관통계 1977

2) 각 대학도서관 1978년도 업무보고서 참조. 1979년 4월 현재

3) 장서통계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필자가 직접 서고에 소장된 도서와 대출증인 도서의 「북카드」를 세어서 수립된 통계임. 1979년 4월 현재.

4) 각 도서관 1979년도 3월분 열람일지 참조.

5) 각 도서관의 1979년 3월 2일에서 3월말까지 대출된 도서의 대출신청서에서 수립된 통계임.

서의 「북카드」 또는 대출기간표에

1978. 7. 20.

1978. 11. 18.

1978. 11. 7.

1979. 1. 4.

로 반납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1979년 1월 5일부터 1979년 4월 9일까지 대출이 되지 않고 대기상태로 서가에 꽂혀있는 기간인 95일간이 서가 대기기간이 되는 것이다.

서가대기기간이 측정된 도서는 표3과 같은 양식의 서가대기기간 측정표의 해당기간란에 표시하여 표4와 같은 누가 서가대기기간표가 작성되는 것이다.

장서의 서가대기기간 측정은 조사대상 주제분야의 전체장서를 표본으

〈표 3〉 서가대기기간측정표(양식)

서 가 대 기 기 간		책	수	계
일	월			
1~30	1	正正正正下		23
31~60	2	正正—		11
61~90	3	正丁		7
91~120	4	正—		6
121~150	5	正		4
151~180	6	正		5
181~210	7			
211~240	8			
241~270	9	丁		2
271~300	10	—		1

〈표 4〉 누가서가대기기간표

서 가 대 기 기 간 (월)	책 수	누 계	
		책 수	비 율(%)
1	23	23	39.0
2	11	34	57.6
3	7	41	69.5
4	6	47	79.7
5	4	51	86.4
6	5	56	94.9
7	—	—	—
8	—	—	—
9	2	58	98.3
10	1	59	100.0

로 하여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무작위로 표본을 취한 것과 거의 동일한 조직적인 표본 추출방법으로 각 주제분야의 장서 중에서 300~400책 정도의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서가에 꽂혀 있는 도서를 분류 순 배열의 순서에 따

14 韓國 비블리아 第4輯

라 때 × 번째 도서를 표본으로 취하였다. 각 도서관의 주제별 장서의 표본은

- 가. 건국대 중앙도서관 : 정치학 매 10번째 도서
경제학 매 10번째 도서
법률학 매 10번째 도서
- 나. 경희대 중앙도서관 : 정치학 매 6번째 도서
경제학 매 7번째 도서
법률학 매 9번째 도서
- 다. 단국대 중앙도서관 : 정치학 매 5번째 도서
경제학 매 5번째 도서
법률학 매 7번째 도서

를 취하였다. 이와같이 취해진 표본도서는 조사가 행해진 날자에 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유용도가 높을수록 행해진 연구의 타당성은 높아진다. 본 연구의 타당도는 도서에 대한 과거이용기록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표 5〉 수집자료의 유용도

대 상	도서관	건국대중앙도서관			경희대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도서관		
	유용도	대상	유용	유용도(%)	대상	유용	유용도(%)	대상	유용	유용도(%)
	주제별									
대출도서	정치학	163	118	72	165	122	74	146	121	83
	경제학	187	131	70	158	122	77	178	144	81
	법률학	246	175	71	171	125	73	200	158	79
	계	596	424	71	494	369	75	524	423	81
장 서	정치학	367	239	65	330	221	67	315	227	72
	경제학	423	273	65	320	221	69	328	243	74
	법률학	421	265	63	331	235	71	341	249	73
	계	1211	777	64	981	677	69	984	719	73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도서의 유용도가 장서의 유용도보다 높은 것은 비교적 최근에 입수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도서의 대출기록이 일

수년지 오래되고 이용이 거의 없는 도서의 대출기록보다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대출제도가 현재에는 수준에 올라 있으나, 초창기에는 대출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제한점이 될 수도 있으며 수집자료의 유용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가. 대출기간표에 과거의 대출기록이 없어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용자료가 될 수 없었다.

- 1) 다 사용된 대출기간표는 버리고 새로운 대출기간표를 붙인 경우
- 2) 책이 파손되어 다시 제본할 때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출기간표가 없어진 경우
- 3) 그외에 대출기간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나. 대출기간표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서가 대기기간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유용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경우는 반납일 또는 반납예정일의 년도가 기록되지 않아 서가대기기간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다. 도서관 설립 이래 대출기간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현재의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라. 복본의 도서는 각각 도서로 취급하여 서가대기기간이 측정되었다.

2. 기본장서와 서가대기기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폐기기준은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에 의해 현장서에 대한 장래 이용도를 예견하여, 일정 수준의 장래 이용을 만족시켜주는 기본 장서는 계속 도서관에 소장하고, 기본장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기본장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장서와 비기본장서를 구별해주는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을 폐기기준으로 삼아 일정기간동안 대출이 되지않고 서가에 대기하고 있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장서와 비기본장서의 구분은 현장서에 대한 대출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현장서에 대한 대출을 몇 퍼센트 충족시켜 주는 도서를 기본장서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장서와 비기본장서를 구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본장서의 결정은 관중에 따라, 자료의 종류에 따라, 또는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슬로우트」에 의하면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85~90%,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연구자료는 95~99%, 초급대학교 도서관자료는 90~95%, 대학도서관의 자료는 95~99% 정도로 만족시켜주는 도서군을 기본장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그러나 이와같은 수치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각 도서관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각 주제별 장서의 폐기기준

가. 정치학분야

3개 표본도서관에서 측정된 정치학분야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표 6과 같다. 「슬로우트」가 제시한 현재 대출되는 도서의 95~99%를 만족시켜 주는 도서를 대학도서관의 기본장서로 받아들인다면 정치학분야 장서중 기본장서에 포함되는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표 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치학분야 장서중 현행 대출도서의 95%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장서로 한다면 19~22개월이내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가 기본장서이므로 23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으며 현행대출도서의 99%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장서로 한다면 32개월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한국어로 기술된 일반도서 자료로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정치학분야 장서중 23~32개월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표 7, 9, 11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본장서에 포함되는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장서의 이용 행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표본도서관에서 얻은 폐기기준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장서의 폐기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27) Slote, *op. cit.*, 39-46.

〈표 6〉 정치확분야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대기기간

단위 : %

서 가 대 기 기 간		진국대중앙도서관		경희대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도서관	
일	월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30	1	48.3	24.7	55.7	29.9	50.4	27.8
60	2	55.1	29.3	62.3	35.3	57.9	34.8
90	3	58.5	32.6	67.2	43.4	64.5	40.1
120	4	64.4	37.7	71.3	47.1	68.6	44.9
150	5	68.6	40.6	73.8	55.2	73.6	50.2
180	6	71.2	44.4	77.0	60.6	75.2	57.7
210	7	72.0	46.9	80.3	61.5	76.9	61.7
240	8	75.4	50.2	—	64.3	79.3	64.8
270	9	—	52.3	82.8	67.0	80.2	70.0
300	10	76.3	54.8	83.6	71.5	81.8	72.7
330	11	78.8	58.2	85.2	73.3	84.3	74.9
360	12	80.5	59.8	—	75.1	85.1	78.0
390	13	83.9	61.1	86.1	76.0	87.6	80.2
420	14	—	64.0	87.7	76.9	—	81.5
450	15	85.6	65.7	88.5	—	89.3	—
480	16	87.3	68.2	89.3	78.7	90.1	84.1
510	17	88.1	70.3	—	79.6	92.6	85.5
540	18	89.0	71.5	91.0	80.5	94.2	87.7
570	19	90.7	74.5	91.8	81.4	95.0	—
600	20	93.2	76.6	93.4	81.9	—	89.0
630	21	94.1	78.2	95.1	82.4	96.7	89.9
660	22	95.8	—	95.9	82.8	97.5	90.7
690	23	—	79.1	96.7	83.7	98.3	—
720	24	96.6	80.8	98.4	85.5	99.2	92.1
750	25	—	82.8	99.2	87.3	100.0	93.0
780	26	97.5	—	—	88.2	—	94.3
930	31	98.3	84.1	100.0	—	—	96.0
1080	36	100.0	85.8	—	91.0	—	97.4
1230	41	—	88.3	—	—	—	98.2

〈표 7〉 기본장서의 서가대기기간(정치학 분야)

도 서 관 명	기 본 장 서 의 서 가 대 기 기 간	
	95%수준	99%수준
전국대 중앙도서관	22개월이내	31개월이내
경희대 중앙도서관	21개월이내	25개월이내
단국대 중앙도서관	19개월이내	24개월이내

나. 경제학분야

3개 표본도서관의 경제학 분야 대출도서관의 서가대기기간은 표 8과 같이 측정되었다. 정치학분야 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학분야 도서의 기본장서에 해당하는 서가대기기간을 요약하면 표 9와 같이 나타나서 현행 대출의 95%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 장서에 포함시킨다면 23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으며, 현행 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장서로 한다면 32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한국어로 기술된 일반 도서 자료로서 권외대출이 가능한 경제분야 장서중 23~32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표 8〉 경제학분야 대출도서관과 장서의 서가대기기간 단위 : %

서 가 대 기 기 간		전국대중앙도서관		경희대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도서관	
일	월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30	1	50.4	20.1	47.7	22.5	46.3	24.3
60	2	57.3	25.6	42.3	28.7	53.1	29.6
90	3	61.8	28.6	59.4	33.3	57.8	33.3
120	4	66.4	33.0	65.6	36.4	63.3	37.9
150	5	69.5	35.6	69.5	40.3	66.0	42.0
180	6	74.0	38.8	71.9	41.9	68.7	45.3
210	7	76.3	41.0	75.8	44.2	70.7	46.9
240	8	77.9	42.9	77.3	-	74.1	50.2
270	9	80.2	46.5	79.7	45.0	78.2	53.1
300	10	81.7	48.0	83.6	45.7	81.0	55.1
330	11	84.7	50.2	-	46.5	82.3	-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

360	12	87.8	52.7	-	48.1	84.4	58.4
390	13	90.8	54.6	85.9	50.3	87.8	61.3
420	14	92.4	55.7	87.5	51.2	-	63.8
450	15	93.1	56.4	90.6	51.9	89.8	64.2
480	16	-	57.9	92.2	53.5	91.2	66.3
510	17	93.9	59.7	93.0	55.8	92.5	67.9
540	18	95.4	62.6	94.5	-	-	70.4
570	19	-	64.1	-	59.7	93.2	71.2
600	20	96.2	65.2	-	62.0	-	72.4
630	21	96.9	67.4	95.3	62.8	94.6	74.1
660	22	97.7	-	96.1	64.3	95.2	-
690	23	98.5	70.3	97.7	69.0	95.9	76.5
720	24	99.2	72.2	-	72.1	97.3	78.2
750	25	-	75.5	98.4	73.6	98.0	-
780	26	100.0	76.9	99.2	76.7	98.6	80.2
930	31		78.8	100.0	78.3	99.3	81.5
1080	36		81.7		79.8	100.0	83.1
1230	41		83.5		-		86.0

〈표 9〉 기본장서의 서가대기기간(경제학분야)

도 서 관 명	기 본 장 서 의 서 가 대 기 기 간	
	95%수준	99%수준
건국대 중앙도서관	18개월이내	24개월이내
경희대 중앙도서관	21개월이내	26개월이내
단국대 중앙도서관	22개월이내	31개월이내

다. 법률학분야

표10은 3개 표본도서관에서 측정한 법률학분야 장서중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이다. 여기에서 기본장서에 포함되는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요약하면 표11과 같다. 현행 대출의 95%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장서에 포함시킨다면 21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으며, 현행 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도서를 기본장서로 한다면, 25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는

20 韓國 비블리아 第4輯

〈표 10〉 법률학분야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대기기간

단위 : %

서 가 대 기 기 간		건국대중앙도서관		경희대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도서관	
일	월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30	1	56.0	24.9	52.0	28.9	51.9	32.5
60	2	64.0	31.7	57.6	35.3	56.3	39.8
90	3	69.1	35.5	63.2	40.0	62.0	45.8
120	4	73.7	37.7	67.2	43.8	69.6	50.6
150	5	76.6	40.8	72.0	47.2	73.4	56.2
180	6	80.6	43.4	75.2	51.5	75.9	59.4
210	7	82.9	46.8	77.6	56.2	77.2	62.7
240	8	84.6	48.7	80.6	59.6	78.5	64.7
270	9	86.9	50.9	80.8	62.1	81.6	68.7
300	10	88.0	52.1	82.4	65.5	82.3	69.9
330	11	89.7	53.6	83.2	67.2	84.2	72.7
360	12	90.9	56.2	84.8	69.4	85.4	73.9
390	13	91.4	58.1	87.2	70.2	88.0	77.1
420	14	93.1	-	88.8	71.9	88.6	79.1
450	15	93.7	59.6	89.6	73.2	93.0	-
480	16	94.3	61.9	92.0	75.3	-	81.1
510	17	-	63.8	93.6	76.6	94.3	81.9
540	18	94.9	64.9	94.4	77.4	94.9	83.1
570	19	96.0	67.5	-	78.7	96.2	84.7
600	20	97.1	70.2	95.2	-	97.5	-
630	21	97.7	-	96.8	79.1	98.1	85.9
660	22	98.3	71.7	98.4	80.4	-	86.7
690	23	-	74.7	99.2	82.1	98.7	88.0
720	24	98.9	78.1	100.0	83.0	99.4	-
750	25	99.4	80.0	-	86.0	100.0	89.2
780	26	100.0	81.5	-	87.7	-	90.8
930	31	-	83.8	-	-	-	91.6
1080	36	-	85.7	-	89.8	-	92.8
1230	41	-	86.4	-	91.5	-	95.2

〈표 11〉 기본장서의 서가대기기간(법률학분야)

도 서 관 명	기 본 장 서 의 서 가 대 기 기 간	
	95%수준	99%수준
전 국 대 중 앙 도 서 관	18개월이내	24개월이내
경 회 대 중 앙 도 서 관	20개월이내	23개월이내
단 국 대 중 앙 도 서 관	18개월이내	23개월이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일반 도서자료로서 한국어로 기술되고 판의대출이 가능한 법률학분야 장서중 21~25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 주제별 장서의 폐기기준 비교

앞에서 제시한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 장서의 폐기기준을 비교하므로써 주제에 따라 장서의 폐기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장서의 폐기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학과 경제학분야 장서중 폐기대상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론 두 주제의 폐기기준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정치학, 경제학분야의 도서는 학문의 성격상 거의 동일한 폐기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률학 분야의 폐기대상도서는 정치학, 경제학분야의 폐기대상도서보다 짧은 서가대기기간을 나타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법률에 대한 도서가 새로 출판됨에 따라 구법에 관한 도서는 이용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이 주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장서의 폐기기준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장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제별로 구분하여 폐기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표 12〉 주제별 폐기기준의 비교

주 제 별	폐기 도서의 서가 대기 기간	
	95%수준	99%수준
정 치 학	23개월이상	32개월이상
경 제 학	23개월이상	32개월이상
법 률 학	21개월이상	25개월이상

5. 서가대기기간과 장서의 폐기규모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현 장서의 대출 만족도를 나타내어 기본 장서와 비기본장서를 구분하므로써 폐기기준을 마련해 주며,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은 기본 장서와 비 기본장서에 해당하는 장서의 규모를 알려 주어 현 장서의 어느 정도를 폐기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표13은 각 주제분야 도서의 기본장서에 해당하는 장서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는 표 6, 8, 10에 나타나 있는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에서 기본장서에 해당하는 대출도서의 서가 대기기간과 동일한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전체 장서의 비율을 뽑아낸 것이다.

표13에 의하면 전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정치학분야 장서는 현 장서 중 84.1%가 현행대출의 99%를 만족시켜주고 있으므로, 현행 대출을 99%수준까지 만족시키겠다면 현장서중 15.9%의 도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서관 장서를 폐기하여 일정 규모의 서고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의 서고공간의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를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표 13〉 기본장서에 포함되는 장서의 규모 단위 : %

주 제 별	기본장서 (99% 수준)에 포함되는 장서의 규모		
	전국대중앙도서관	경희대중앙도서관	단국대중앙도서관
정 치 학	84.1	87.3	92.1
경 제 학	72.2	76.7	81.5
법 률 학	78.1	82.1	88.0

Ⅳ. 결 론

출판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각 도서관은 서고공간의 부족과 더불어 장서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서의 질적 저하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약화시키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시켜 도서관을 침체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장서의 폐기이며 일반적으로 폐기대상이 되는 분명한 것으로는 장래에 이용되지 않을 도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장래이용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거의 대출기록인 서가대기기간을 조사하여 장래에 이용되지 않을 도서를 폐기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3개 종합대학교 도서관을 표본도서관으로 하여, 이 3개 표본도서관의 일반도서 자료중 한국어로 기술되고 관외대출이 허용된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분야의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 대기 기간을 조사하여 현장서의 장래 대출 만족도를 나타내 주는 일정한 서가대기기간을 장서폐기의 기준점으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타났다.

가. 정치학분야 장서중 23~32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

나. 경제학분야 장서중 23~32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

다. 법률학분야 장서중 21~25개월 이상의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

라. 각 주제별로 일정 수준의 대출만족도를 나타내는 서가대기기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을 결합하여 각 표본도서관의 현행대출을 일정수준 만족시키고 있는 장서의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1)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장서중 일반 도서자료로서 한국어로 기술되

24 韓國 비블리아 第4輯

고 관외대출이 허용된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분야 장서의 대출만족도를 예시해 주는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이 밝혀짐에 따라 각 도서관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도서관에 계속 소장할 기본장서에 포함되지 않는 서가대기기간을 가지는 도서는 폐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폐기의 기준을 얻게 되었다.

(2) 각 주제분야에 따라 일정 수준의 대출만족도를 나타내는 서가대기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므로써 각 도서관이 폐기기준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주제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폐기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폐기기준 설정방안이 제시되게 되었다.

(3) 대출도서와 장서의 서가대기기간을 결합하여 폐기하여야 할 장서의 규모를 알게 됨으로써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서고공간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폐기기준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이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본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본 연구에서 다룬 3가지 학문분야 이외의 학문분야에 대한 폐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채택하여 행한 서가대기기간의 측정에 의한 폐기기준 설정방법과 다른 방법 즉 도서의 출판년, 도서에 기술된 언어, 도서의 최종대출년도 등에 의한 폐기기준의 설정방법이 비교,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Efficient Administration of Library Collections
with Emphasis on Establishment of Weeding Criteria**

Un-Chul Lee

Abstract

Due to the rapid growth of publications, librarians have been fac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shortage of stack as well as the quality deterioration of library collections. This naturally disappointed the user communities and the present library activities are weak and inadequate. It seems to the author that one of the desirable actions in remedying this problems is to weed library collections properly and regula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weeding criteria in library collections,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political science, economics and law. In order to establish weeding criteria, shelf-time period which is the length of time that a book remains on the shelf between the last two users of a volume, was measured by examining the book cards or date-due slips of circulating books and collections which remained in the stac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n the fields of political science economics and law, the shelf-time periods of general materials in Korean for circulation was measured.
- (2) This study shows shelf-time periods that vary in different subject fields.
- (3) Combining the shelf-time periods of books in active circulation and the total collection including books which have never been circulated, the size of library holdings which may satisf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current circulation can be estimated.